

環境心理・行態 研究의 可能性과 限界性

任 勝 彬

(서울대학교 農科大學 造景學科)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Psychology and Behavior Studies to Environmental Design

Im, Seung-B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ollege of Agri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

Environmental designers in Korea have shown interests in Environmental Psychology and Behavior Studies (EPBS) since 1970's. However, many designers, who have expected a great deal of contribution from the EPBS, have disappointed due to their overexpectation and misunderstanding on the EPBS.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nature of the EPBS and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the EPBS to the field of environmental design.

The EPBS are able to help designers by providing scientific data in each stage of the design process. Further, most design theories and principles are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EPBS. Thus the development of the EPBS has great potential of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design theories and principles.

Due to the scientific nature of the EPBS, however, the EPBS have difficulties in supplying scientific data within relatively short period, which make most designers impatient.

Designers should understand the scientific nature of the EPBS and be patient in expecting usable outcome from the EPBS. Further, Designers should not expect the EPBS give them design solution itself.

序

1960年代 이래로 西歐에서 발전되기 시작한 環境心理 및 人間行態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오면서 우리나라 設計家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설계가들의 과도한 기대 혹은 불확실한 이해로 인하여 실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없지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심리·행태연구의 특성을 분석해보고 환경설계와의 관련성을 규명해봄으로써 환경심리·행태연구가 환경설계에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

環境心理·行態연구와 設計教育

1. 環境心理·行態연구의 발달

환경심리·행태 연구의 발달과정은 환경설계분야(건축, 조경, 도시설계, 환경미술 등)와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가 상호접근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환경설계는 건축가(architect)들이 주로 담당하여 왔으며 조경, 도시계획 등의 보다 세분된 전문분야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다.

건축가들이 심리학자로부터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다고 최초로 생각한 사람은, 스위스의 건축가 메이어(Meyer)라고 전해진다(Broadbent, 1980). 메이어는 독일의 그로피우스(Gropius)가 1920년대에 미술과 공예의 결합을 목적으로 설립한 바우하우스(Bauhaus)에 초대되어 건축교과과정을 마련하면서 심리학강의를 개설하였다. 메이어는 이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건물이 생리적, 심리적 및 인간의 기타 유기체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공부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후 심리학 및 사회학이 환경설계와 직접적인 유대를 맺은 것은 1961년 미국 유타주에서 열린 건축心理學과 정신병학(Architectural Psychology and Psychiatry)에 관한 회의가 열리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건축심리학(Architectural Psychology)이라는 단독주제를 채택한 것은 1967년 미국 유타주에서 전국 규모의 회의가 열린 것이 세계최초이며(Broadbent, 1980) 영국에서는 1969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칸터(David canter)의 주도로 최초의 회의가 열렸다(Broadbent, 1980).

이후 미국에서는 1970년에 환경설계연구학회(EDRA;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Association)가 창립되면서 환경설계와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 관련학문간의 본격적인 유대가 맺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크레이크(craik, 1973)는 환경심리학의 관심분야를 종합정리한 바 있는데 이는 환경심리학의 본격적인 대두를 의미한다. 이밖에도 1970년대에는 '環境과 行態(Environment and Behavior)'등의 학술지 및 수 많은 책을 통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의 내용들이 출판되었다.

이러한 활발한 연구활동은 기존의 人造環境이 설계자의 직관 및 경험에만 의존하고 실제 이용자의 선호 및 가치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적합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에 대한 비판 및 반성에 자극을 받아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환경지각, 인지 및 태도에 관한 연구에 더하여 '環境의 意味'에까지 연구의 폭을 넓히고, 환경설계에 일반대중의 선호 및 의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상을 살펴볼 때 1920년대부터 1950년대 까지를 環境心理·行態研究의 胎動期로 볼 수 있으며, 1960년대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며 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出産期로 볼 수 있다. 1970년대는 종합과학적 연구를 지향한 연구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幼兒期로 볼 수 있으며, 1980년대는 문제중심적인 접근을 통하여 이용자의 심리·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少年期라 할 수 있다(표 1). 1990년대 이후에는 그동안의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축적되고, 환경설계의 과학화가 정착되어 본격적인 체도에 오르게 될 것이며, 따라서 환경심리·행태의 연구방법 및 설계에의 체계가 확립되고 관련분야와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표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歐美에서는 심리학자, 사회학자 등이 環境心理·行態 분야에 적극 참여하여 設計家에 자극을 주고, 관련분야간에 비교적 균형을 이루며 이 분야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環境設計家들이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 胎動期 혹은 出産期에 있다고 보여지는 우리나라에서는 心理學이나 社會學쪽에서 이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환경심리학'과목이 심리학과에는 없고 환경설계관련학과에 개설되어 있음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서울

표 1. 환경심리·행태 연구의 발달

	연 도	사 건	경 향
胎 動 期	1920~1950's	Bauhaus에서 비롯	심리학 강의 개설
出 産 期	1960's	세계 최초의 건축심리학'회의	연구의 필요성 인식
幼 兒 期	1970's	환경 설계 연구 학회 창립	종합 과학적 모색
少 年 期	1980's	환경 설계의 대중화	문제 중심적 접근 모색
靑 年 期	1990's	환경 설계의 과학화 정착	관련 분야의 본격적, 실질적 협력

대학교, 1985). 또한 社會學科, 人類學科, 地理學科에는 각각 都市社會學, 都市人類學, 都市地理學 등이 개설되고 있으나 환경설계에 얼마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서울대학교, 1985).

우리나라에서 環境心理·行態분야의 발전을 위하여는 관련분야간의 협력과 공동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環境心理·行態연구와 相關學問

지난 20년 동안 환경설계(건축, 조경, 도시설계, 환경미술 등)와 관련하여 환경심리 및 인간행태에 관한 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책들은 독자들이 혼란을 느낄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나 학문적 근원을 따르다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심리학에 기본바탕을 두고 있는 환경심리학에 관한 것으로서 환경의 지각, 인지 및 태도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흐름을 대변하는 책들은 그 제목에서 주로 '환경심리(학)'를 표방하고 있다(Proshansky, et al, 1970.; Heimstra & Mcfarling, 1974; Ittelson, et al, 1974; Bell, et al, 1978; Holahan, 1982).

둘째로는 사회학, 인류학 및 지리학에 기본바탕을 두고 있으며 人造環境내에서의 인간행태를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흐름을 대변하는 책들은 환경심리학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출판되고 있다. 그 제목에서 '환경과(사회적)행태'(Altman, 1975; Porteous, 1977)를 많이 표방하고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다양한 제목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간과 도시환경(Man and His Urban Environment, Michelson, 1970)' '환경계획: 지각과 행태(Environmental Planning: Perception and Behavior)' '건축의 실험사회학(Experiment-

tal Sociology of Architecture, Ankerl, 1981)'등이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도시형태의 인간적 측면(Rapoport, 1977)' '人造環境에서의 意味와 行態(Broadbent, et al, 1980)', '인조환경의 의미(Rapoport, 1982)'등이 출판된 바 있다.

세째로는 환경설계 및 계획에 기본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주로 직관에 의지하여온 전통적인 설계자세로부터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책들은 '패턴의 언어(Alexander, 1977)', 도시의 이미지(Lynch, 1960)', '소규모 도시공간의 사회적 행태(Whyte, 1980)등이다.

이상에서 환경심리 및 행태에 관련된 연구를 저자의 학문적 배경 및 이에 따른 접근측면에 따라서 셋으로 구분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연구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상호간의 영역상 경계를 긋기란 매우 어렵다.

더우기 최근에 오면서 문제중심적인 접근이 일반적 경향이 되면서 각 분야의 경계란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하게 끊어졌다.

일반적으로 심리학 쪽에서는 '환경심리'라는 표현을 쓰고, 사회학, 인류학 쪽에서는 '인간행태'라는 표현을 주로 쓰며 환경설계분야에서는 '과학적 설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심분야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心理'와 '行態'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설계연구에서는 환경창조와 인간 심리 및 행태의 상호관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환경심리 혹은 인간행태의 연구는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인간환경의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간환경의 창조를 위하여는 앞서 언급된 분야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상의 관련분야들이 균형있게 조화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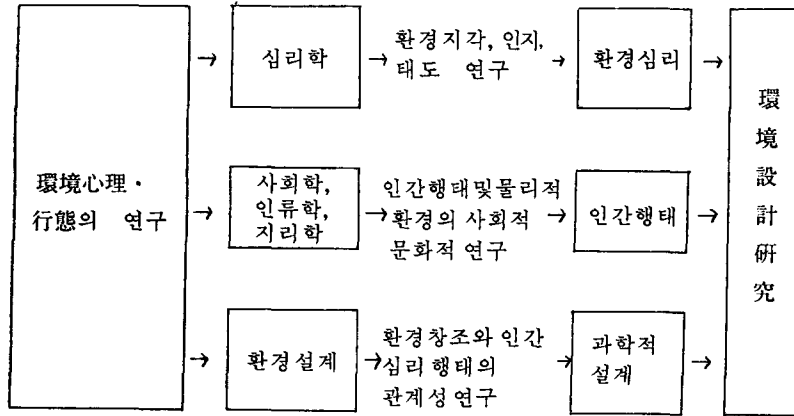


그림 1. 環境心理・行態의 綜合的 研究.

이상에서 언급된 세가지 분야는 접근 측면에서 약간씩 상이함을 보여주나 궁극적으로는 物理的 環境과 인간의 心理行態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공통점이 있다.

3. 設計敎育과 環境心理・行態研究

환경설계에 있어서 환경심리·행태연구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은 1960년대 초부터 비롯 되었으나 교과과정에 반영된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1967년 미국건축가협회(AIA)에 의하여 74개의 건축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환경설계교육의 연구에 의하면 건축대학 대학원과정에서는 사회과학 혹은 인문과학에 관한 강의가 전혀 없었으며 학부에서는 일부(사회학, 심리학, 철학등)있었으나 이는 대부분이 입문 정도에 그치는 것이었다(Perin, 1970). 따라서 환경심리·행태에 관한 본격적인 교육은 1960년대말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환경심리·행태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환경설계교육과정에 이들과 관련된 교과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 교과목의 명칭은 다양한 양상을 보여 주어서 펜실바니아대학에는 '도시설계에서의 행태적 인자(Behavioral Factors in urban Design)' '사회과학연구방법(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 등이 있으며, 버지니아주립대(VPI & SU)에는 '설계에서의 인간환경적인자(Human Environmental Factors in Design)'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상과 같이 그명칭에 있어서는 다양하나, 환경설계와 관련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분야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환경설계와 계획에서 종합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설계교육에서 환경심리행태에 관한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1970년대후반에 이르러 비로서 교과목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서울대학교, 1977, 1981, 1985). 학부에서는 1981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조경학과에 '人間行態分析'이 최초로 개설 되었다. 대학원과정에서는 1976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에 '環境心理學'이 최초로 개설되었다. 이어서 197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과에 '建築環境心理論'이 개설되었으며, 1981년에는 동대학교 환경대학원에 '環境心理'가 개설되었다(1985년에 '환경심리와 행태'로 개정). 같은 해 동대학교 농과대학 조경학과에는 환경심리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環境美學'이 개설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과 같이 1970년대 후반 및 80

표 2. 미국 건축 대학의 교과과정

과 목	學 部	大 學 院
건축·설계	26%(평균)	44%(평균)
시각적연구	9	7
사회 과학	3	0
인문 과학	8	0
선택	9	1

(자료 : Perin, 1970, p.7)

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환경심리·행태에 관련된 교과목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교과목 명칭은 다르더라도 다른과목에서 부분적으로 환경심리·행태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관한 본격적인 교육은 아직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설계교육을 위한 '환경심리행태'관련과목의 도입이 절실하다. 그러나 아직도 과목의 명칭은 물론이려니와 무슨 내용을 어느 정도의 깊이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기준설정조차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4. 設計家와 科學者

環境心理·行態의 연구는 궁극적으로 환경설계와 社會 및 行態과학(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지리학)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設計와 科學을 결합시킨다는 일은 매력적이며 흥미로운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두 영역이 지닌 특수성의 차이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設計작업과 科學的 研究의 특성을 대비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Altman, 1975).

1) 결과물의 實現—현상의 理解

설계작업은 주어진 시간내에 의뢰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설계안을 만들어야 하며 이안은 실제로 시공될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비하여 과학적 연구는 보다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며, 현실에의 적용보다는 현상의 파악과 이해에 보다 관심을 둔다. 연구결과는 현실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설계자는 비록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결과물을 만들어내야하는 반면, 과학자의 연구는 논리적으로 보다 치밀한 구성을 지닐 수 있으나 연구결과를 현실에 곧바로 적용할 것을 최상의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綜合—分析

설계작업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가능한한 모두 수집하고 각 항목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각항목의 상대적 중요성에 부응하여 설계안을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설계작업은 관련된 사항을 綜合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과학적 연구는 하나의 현상을 요인별

로 나누고 더욱 세분하여 각각의 인자의 역할 및 인자상호간의 관련성을 밝혀내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는 分析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3) 場所中心—概念中心的

설계작업은 특정장소를 전제로 한 작업인데 비하여, 과학적 연구는 여러장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정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위하여 세계의 축을 가정해보자(Moore, 1979)(그림 2).

첫째로 場所의 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작계는 가구, 방으로부터 크게는 도시, 지역, 국가에 이르며 이들은 환경설계의 물리적 單位들이 된다.

둘째로 利用者의 축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각각의 물리적 單位를 이용하는 인간그룹으로서 어린이, 노인을 비롯한 개인 및 각종 규모의 그룹을 포함한다.

셋째로 行態 및 概念의 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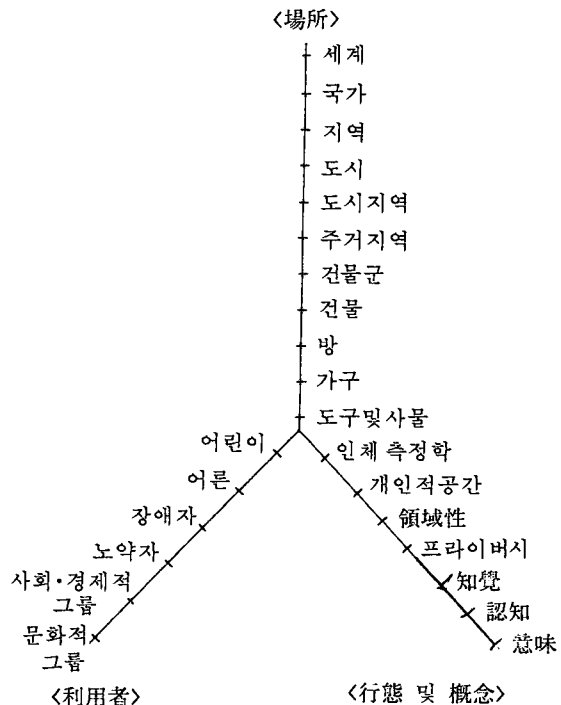


그림 2. 環境—行態의 정보체계. (자료: Moore, 1979, P. 50)

는 물리적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환경을 지각, 인지하고 반응하는 과정 및 이용자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축을 가정해 볼 때 환경설계가는 場所軸상의 특정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의 이용자 및 이용자의 행태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이에 비하여 사회 및 행태과학자들은 특정行態 혹은 概念에 초점을 맞추고 이 행태 혹은 개념이 이용자그룹 및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혹은 불변하는가를 규명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4) 表現的 創意性—合理性

전통적으로 설계작업은 創意性을 필요로 하며 과학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되어져왔다. 그러면 科學者는 창의성이 없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은 자명하다. 높은 창의성을 지닌 과학자가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창의성을 '思考의 創意性'과 '表現의 創意性'으로 구분할 필요를 느끼며, 이를 통하여 설계작업과 과학적 연구의 특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任, 1984).

思考의 創意性은 주로 科學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혹은 개념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이는 보통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출하기 어려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없는 주로 추상적인 내용이 된다. 表現의 創意性은 주로 藝術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건축, 미술, 음악 등과 같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감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다(그림 3).

思考와 表現의 창의성이 구별되는 것은 같은 아이디어 혹은 개념을 갖고서도 이것을 표현하는데(예: 건축, 조경, 음악 등)있어서는 수많은 형태를 지닐 수 있음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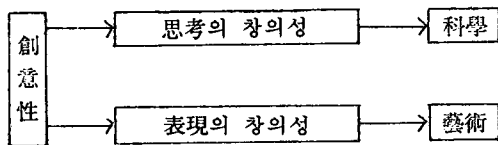


그림 3. 創意性的 類型.

設計過程은 일반적으로(프로그램 작성)—(분석)—(종합)—(설계안 도출)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프로그램작성의 단계에서는 思考의 창의성이 요구되며 설계안 도출의 단계에서는 表現의 창의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설계작업에서는 두가지 유형의 創意性이 모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科學的 研究는 일반적으로(假說설정)—(가설檢證)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가설의 설정단계에서는 思考의 창의성이 요구되며,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는 思考의 合理性이 요구된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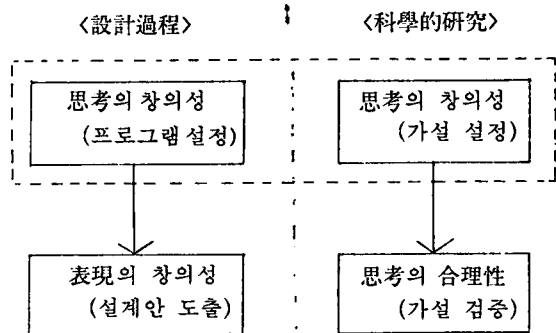


그림 4. 설계 및 과학적 연구의 과정.

따라서 設計家와 科學者는 기본적으로 思考의 창의성이 요구되나 이에 더하여 설계가는 表現의 創意性이 필요하며 과학자는 思考의 合理性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에서도 전통적으로 設計家는 표현의 창의성(예술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科學者는 論理의 합리성을 강조하여 왔다. 이상에서 언급된 設計와 科學의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인하여 환경심리·행태 연구에 거는 기대는 두 분야간에 차이가 있다.

즉 설계분야에서는 설계에 직접 응용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社會 및 行態科學분야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기초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것은 것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視角의 차이로 인하여 설계가들은 환경심리·행태 연구에 대하여 실망을 느끼기도 하며, 과학자들은 이 분야의 연구에 매력을 잃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경심리·행태 연구 분야에 대한 설계가와 과학자의 관심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은 이 분야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라 볼 수 있다.

설계자들은 시급한 문제를 추출하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과학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및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두 분야간의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5. 環境心理·行態研究者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설계자와 과학자가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누가 양자의 특성을 종합하여 環境心理·行態연구를 수행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설계가 혹은 과학자가 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심리·행태연구의 전문성을 지닌 새로운 전문가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면 설계자의 연구는 실제 적용하기에는 쉬우나 논리적 전개가 치밀하지 못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과학자의 연구는 치밀한 전개를 보여주나 실제 적용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으며, 설계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추상성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설계자들은 과학적 방법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며, 과학자들은 설계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대부분이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수준높은 연구수행이 어려우며, 직접 설계를 해보지 않고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연구자는 설계 및 과학적 연구에 모두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양자 모두에 경험을 갖는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겠다(그림 5). 첫째는 과학자가 설계경험을 한 후에 연구를 수행하는 것인데 사회학자나 심리학자가 다시 설계수업을 처음부터 수행한다는 것은 설계작업의 성질상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다.

둘째는 설계가가 과학적 연구방법 및 관련기본개념을 체득하는 경우인데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나, 설계작업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과학적 방법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높여가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는 처음부터, 예를 들면 學部과정부터 두 분야를 균형있게 수학하여 환경심리·행태연구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일견 가장 바람직한 경우로 보여지나 현재로서는 실현성이 적으며, 장차 환경심리·행태연구분야가 성숙됐을 경우어나

새로운 학과, 혹은 두 분야의 협동과정의 신설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에서 언급된 첫째, 둘째의 경우는 모두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나 두번째의 경우가 보다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세번째의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나 실현성이 적다.

한편 두번째 경우와 세번째 경우의 절충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建築, 造景 등 환경설계 관련학과의 大學院에서 환경설계연구에 관한 전공을 두어 환경심리·행태연구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學部를 졸업하고 설계실무에 3년이상 경험을 가진 후 대학원에 들어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다만 社會 및 行態科學쪽의 교수진을 환경설계 관련학과에서 확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실제로 美國에서는 대부분의 설계학과에 社會 및 行態과학 전문학자를 확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정에서는 누가 이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것이냐보다는 이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은 설계자나 과학자를 불문하고 모두 참여하여 이 분야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이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社會 및 行態과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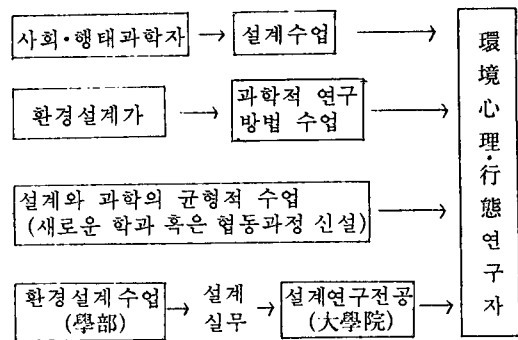


그림 5. 환경 심리·행태 研究者의 양성.

環境心理·行態研究의 寄與

1. 環境심리·행태연구와 設計過程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설계자들은 환경심리·행태연구의 결과가 설계에 직접적으로 응용될 수 있기

를 기대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설계안을 만들 때 思考의 창의성 뿐만 아니라 表現의 창의성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듯하다. 이는 무리한 요구인 듯 보여지며, 이러한 과도한 기대는 설계가들이 과학적연구에 쉽게 실망을 느끼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심리·행태의 연구가 환경설계작업에 어떻게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 것은 환경심리·행태연구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설계의 과정은 각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또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과정은 (프로그램설정) —(자료의 분석 및 종합) —(代案의 설정 및 선정을 통한 기본계획작성) —(세부설계 및 시공도면작성) —(시공)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림 6).

이러한 과정의 각 단계에서 환경심리·행태의 연구는 단계별로 다소 상이한 내용의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네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6).

1) 우선 프로그램의 단계에서 이용자의 특성, 행위유형 및 행위유형에 따른 공간의 규모 및 공간상호간의 관계성에 관한 보다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Altman, 1975, p.196).

2) 자료의 분석 및 종합을 통하여 비교, 평가하여 최적의 代案을 선정할 때 이용자의 價値 및 選好의 측면에서 대안설정의 基準을 제시해줄 수 있다.

3) 기본계획을 더욱 발전시켜 세부설계를 수행할 때 각각의 세부공간이 이용자에게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4) 利用後評價(Post occupancy evaluation)의 방법 및 기준을 제공해 준다(任, 1984). 기존의 설계작업에서는 한번 시공되고 난 후에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끝나버리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공되고 난후에 얼마동안의 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이용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 설계의도대로 이용되고 있는가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 다음의 유사한 프로젝트에 이 결과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利用後評價라고 부른다. 이용후평가는 기본적으로 환경심리·행태연구의 영향을 받아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설계과정의 一方的 흐름을 循環의 흐름으로 바꾸어놓는 계기가 되었다(Moore, 1979).

이상을 살펴볼 때 환경심리·행태의 연구는 설계

작업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과정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과학적근거에 입각하여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계에서 요구되는 두가지 유형의 창의성 가운데 表現의 창의성보다는 思考의 창의성에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설계가는 思考의 창의성보다는 表現의 창의성을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흐름의 반작용으로 대두된 사고의 창의성 및 合理性의 강조가 환경심리·행태연구를 발전시킨 한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科學的 設計라는 말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科學이 설계를 대신한다기 보다는 과학적인 합리적사고와 설계가의 表現의 창의성이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창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겠다.

2. 환경심리·행태연구와 設計技法

環境心理·行態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환경적 刺戟을 知覺·認知하고 態度를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行動으로 나타나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環境心理연구, 人間行態연구, 環境設計연구의 셋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7).

環境心理의 연구는 환경적 자극을 知覺·認知하고 態度를 형성하는 과정에 관련된 기초이론을 포함하며, 특히 美的知覺에 관련된 연구는 환경설계와 관련이 깊다.

人間行態의 연구는 주로 行態와 관련된 文化的, 社會的 物理的 變數들을 포함한다. 이는 넓게보면 環境心理學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겠으나, 인간의 환경적 反應過程 보다는 行態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환경심리학과 구별된다고 하겠다. 즉 인간이 환경적 자극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과정 보다는 환경적 상황과 행태의 직접적 관계에 관심을 두고 이를 연구하는 '環境—行態연구'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관찰 가능한 人間行動을 주로 연구하는 것으로서 최근에 이러한 측면의 연구를 '環境—行態 研究(environment-behavior studies)'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環境設計 연구는 場所에 초점을 맞추어 自然環境 및 都市環境에서 이루어지는 인간행태를 연구하고 이를 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갖는다.

이상과 같은 세 구분은 상호 배타적인 구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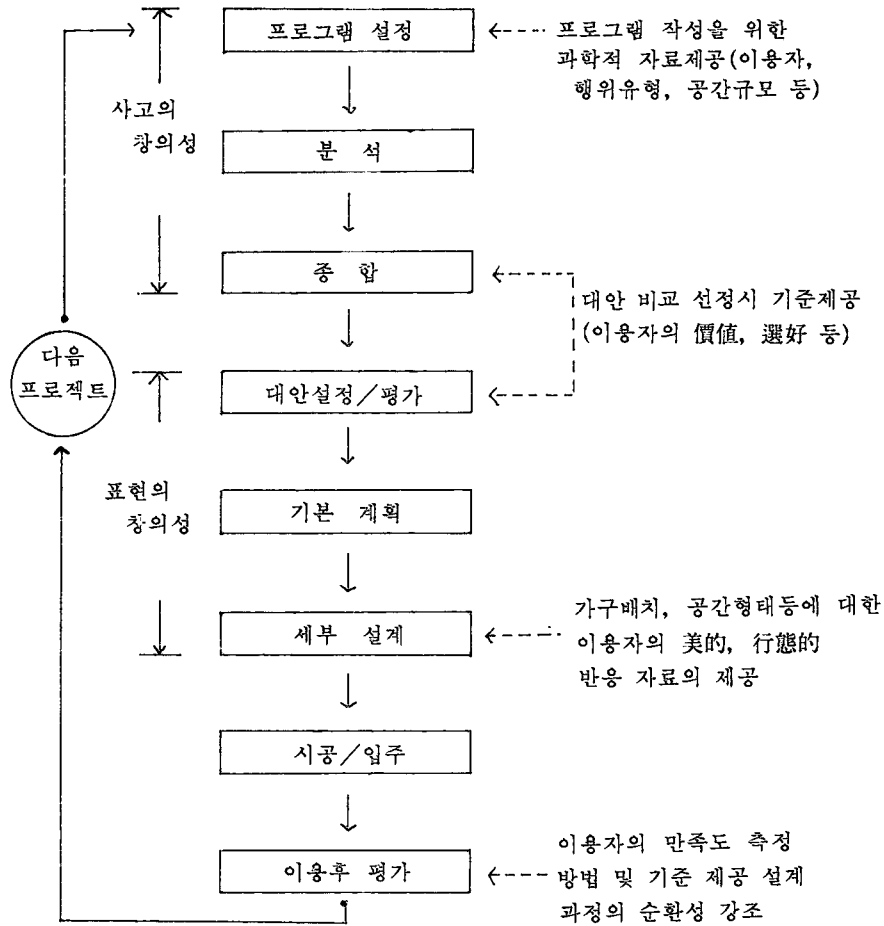


그림 6. 설계과정과 환경 심리·행태 연구의 기여.

수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하여 環境心理·行態연구 분야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환경설계와 관련된 기존의 많은 理論 혹은 技法들은 환경심리·행태 과정의 어느 한 단계와 관계가 깊으며 환경심리학적 이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8).

환경설계의 美的 構成原理들은 주로 환경지각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空間의 이미지와 관련된 認知圖작성은 환경인지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滿足度, 選好度 등의 문제는 환경에 대한 態度와 관련된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더 나아가서 아름다움의 해석은 環境美學에, 평면, 입면 등의 공간구성은 形態 및 空間知覺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한 연속적 경험을 고려한 설계는 時間의 지각에, 意味의 파악을 통한 의사소통은 意味의 知覺에 기초하고 있으며, 시각적질에 관련된 접근은 인간의 視覺的 選好에 바탕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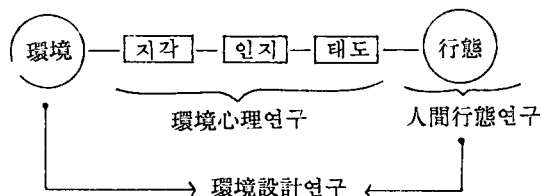


그림 7. 環境心理·行態연구의 內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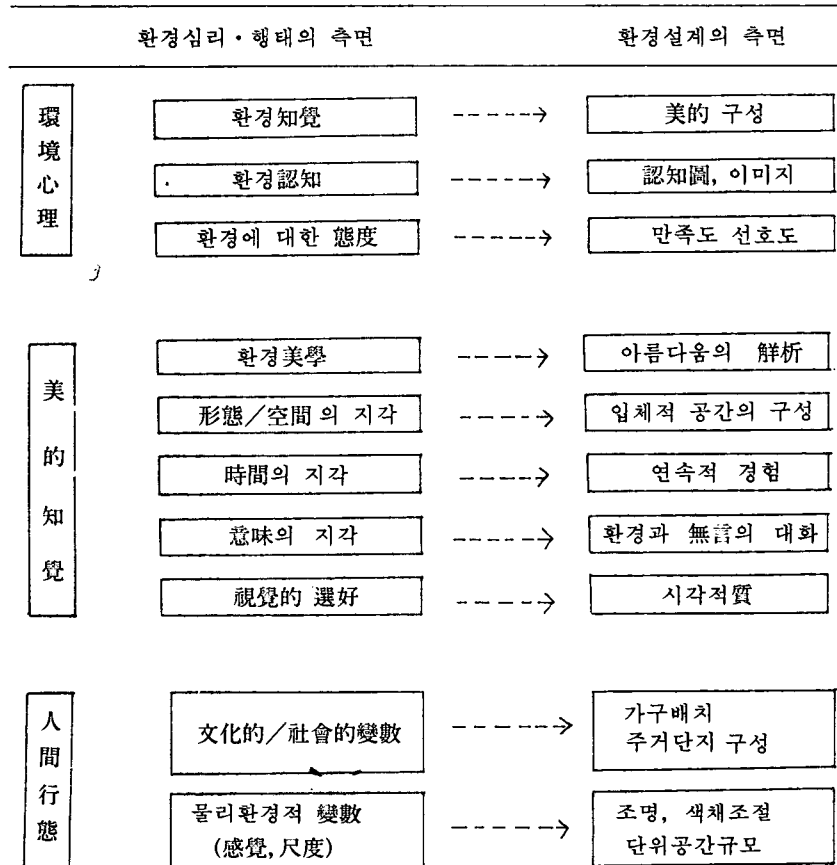


그림 8. 環境心理·行態연구와 環境設計技法과의 관계.

또한 가구배치 주거단지구성 등은 文化的 社會的 變數와 관련이 깊으며, 조명, 색채조절, 단위공간 규모등은 感覺의 環境 및 尺度를 포함하는 物理環境的 變數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環境心理·行態의 연구는 科學的 合理的인 環境설계를 위한 理論的 經驗的 토대를 마련하는데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要約 및 結論

環境設計教育에 있어서 環境心理·行態분야는 필수 교과목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教育內容 및 範圍의 설정은 시급한 과제라 할수 있다.

環境心理·行態의 연구분야는 학문적 연원을 추적해볼때 心理學에 뿌리를 두고 있는 環境心理연구, 社會學, 人類學, 地理學 등에 근거하고 있는 環境(혹은 人間)行態연구, 건축, 조경, 도시설계등과 관련된 環境設計연구의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환경설계에 필요한 創意性을 思考의 창의성과 表現의 창의성으로 구분한다면 환경심리·행태의 연구는 表現의 창의성보다는 思考의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기여가능성이 높다.

環境心理·行態의 연구는 (프로그램 설정) - (대안작성/평가) - (세부설계) - (시공) - (이용후 평가)와 같은 設計過程의 각 단계에서 필요로하는 科學的 資料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合理的인 설계안의 作成 및 評價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환경설계의 제발 理論 및 技法은 대부분이 環境心理·行態연구에 理論的 經驗的 기초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환경심리·행태 연구의 발전은 設計 理論 및 技法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심리·행태 연구는 科學的研究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환경설계가들이 원하는 바를 원하는 기간내에 도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축적됨으로써 점차적으로 環境設計의 發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環境心理·行態의 연구는 환경설계와 관련된 理論的 및 實務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여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성급한 기대를 갖는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다. 더 나아가서 환경심리·행태 연구가 環境設計家들의 表現的 創意力까지 대신해 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옳지 못한 생각이다.

引用 文 獻

- 1) 서울대학교(1977) :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대학원 과정)
- 2) 서울대학교(1981) :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 3) 서울대학교(1985) :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학사과정 및 대학원 과정)
- 4) 任 勝 彬(1984) : 造景計劃·設計論 서울: 普成文化社.
- 5) Alexander C, S Ishikawa & M Silverstein (1977) : A pattern Language New York: Oxford Univ. Press.
- 6) Ankerl G(1981) : Experimental Sociology of Architecture: A Guide to Theory, Research, and Literature. Mouton Publishers.
- 7) Bell PA, JD Fisher & R T Loomis(1978) : Environmental Psychology Philadelphia: W.B. Saunder Company.
- 8) Broadbent, Geoffrey(1980) : "A Semiotic Programme for Architectural Psychology." in G Broadbent, R Bunt, and T Llorens(Eds.) Meaning and Behavior in the Built Environment. Chichester: John wiley & Sons: 313-359.
- 9) Craik KH(1973) : "Environmental Psycholog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24 Palo Alto, Calif. : Anual Reviews, Inc: 402-422.
- 10) Heimstra NW & LH McFarling(1978) : Environmental Psychology. Monterey Ca: Brooks Cole Pub. Co.
- 11) Holahan CJ(1982) : Environmental Psychology. New York: Random House, Inc.
- 12) Ittelson WH, HM, Proshansky, LG Rivlin & GH Winkel(1974) : An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Psycholog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13) Lynch, Kevin(1960) : The Image of the City. Mass.: MIT Press.
- 14) Moore GT(1979) : "Environment-Behavior Studies" In JC Snyder & AJ Catanese (Eds)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New York: McGraw-Hill: 46-71
- 15) Perin, Constance(1970) : An Interdisciplinary Prospectus for Environmental Design. Cambridge: MIT Press.
- 16) Porteous, T Douglas(1977) : Environment & Behavior Menlo Park, Ca. : Addison-Wesley.
- 17) Proshansky HM, WH Ittelson, LG Rivlin (1970) : Environmental Psychology: Man and His Physical Setting. (Ed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nston.
- 18) Repoport, Amos(1977) : Human Aspects of Urban Form. Oxford: Pergamon.
- 19) Rapoport, Amos(1982) : The Meaning of the Built Environment. Beverly Hills: Sage.
- 20) Whyte, William H(1980) :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Washington, D.C.: The Conservation Foundation.